

제4회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 祝 辭

2018. 11. 26(월)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용 범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I .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만찬에 참석해주신  
잠수아이 께오다라봉 라오스 대사님을 비롯한  
아세안(ASEAN) 및 인도 대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석현 금융감독원장님,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님,  
그리고 은행장님들과 금융 유관기관 기관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5년에 처음 개최된 이 만찬 간담회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맞추어  
인도 대사님도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수리프리아 란가나탄 인도 대사님 반갑습니다.

## Ⅱ. 對 아세안 · 인도 협력관계의 중요성

---

내외 귀빈 여러분,

아세안은 인구 6억 4천만명, GDP 2조 5천억달러,  
평균 경제성장률 5%의 역동적인 시장입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세안은  
제2위 교역상대이자 제3위 투자처이며,  
한국도 아세안의 5번째 교역국으로서  
핵심 경제파트너입니다.

인도는 인구 13억 2천만명, GDP 2조 6천억달러,  
실질 경제성장률 6.7%에 달하며,  
한국의 제7위 수출국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세안과 인도는  
젊고 풍부한 노동력, 우수한 과학기술 등에 기반하여  
향후 8%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아세안·인도 지역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 외교, 문화 등에서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정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11월 아세안 순방시 천명한  
‘신남방정책’에 담겨있다 할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를  
핵심가치로 삼아

신남방 지역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평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를 방문\*하여 정상들을 만나시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대통령께서도 방한\*\*하셨습니다.

\* 인니·베트남·필리핀(‘17.11월), 베트남(‘18.3월), 싱가포르·인도(‘18.7월)

\*\* 필리핀 대통령(‘18.6월), 인니 대통령(‘18.6월)

지난 14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는  
아세안과 더불어 잘 사는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고  
경제 성장의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셨습니다.

정상외교에 더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시장진출 기반 마련, 인프라 수주 확대,  
문화·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교류도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하여  
연내 1,60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 '17.1~10월 1,228억불 → '18.1~10월 1,321억불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한-신남방 지역 상호방문객이  
매년 10% 증가하여 올해 최초로 1,000만명을 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Ⅲ. 한-아세안 금융협력 방향

---

상생번영의 한 축으로서 금융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더 성숙하고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과 아세안·인도 지역의 금융교류는 역대 가장 활발한 수준입니다.

아세안·인도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 점포수는 총 162개로, '09년말(78개)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해외 점포의 37%에 해당합니다.

아세안·인도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금융회사의 진출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인도가 단순한 진출 수 증가를 넘어서 한 단계 더 높은 상생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위원회는  
신남방 국가 금융당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금융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금융당국간  
고위급 방문·면담과 MOU 체결을 계기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초청 연수를 진행하는 등  
양국간 금융 제도·산업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오는 2019년에도 신남방 국가 방문을 통해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회사 구조조정, 부실자산 관리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핀테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신흥국 금융감독당국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그 첫 번째 초청 대상이  
아세안 · 인도 금융당국이 될 것입니다.

현지 금융당국의 연수 수요를 반영하여  
금융 제도 · 감독과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현지 진출 금융회사들은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현지화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는 현지 진출 금융회사들이  
기업금융과 소비자금융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높여  
신남방 지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말 한국계 은행이  
베트남 은행의 리테일 부문을 성공적으로 인수합병하여  
베트남 내 1위 외국계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의 높은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며  
한국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한국의 금융 관련 법·제도, 시스템 등을 포함한 금융인프라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개 금융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를 통해  
신남방 국가의 금융인프라 수요를 파악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금결원, 기보, 신보, 보험개발원, 예보, 거래소, 예탁원, 코스콤, 캠프, 주금공,  
증금, 신용정보원, KCB, NICE, 기은, 산은, 은행연, 금투협, 생보험, 손보험, 여신협

금융위는 기재부·외교부의 ODA 사업과  
ADB, WB 등 국제기구의 협력사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남방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인프라가  
적재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대사님 여러분들께  
한국과 아세안·인도 양측이 상생번영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IV. 맺음 말씀

---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대사님들과  
한국 금융회사, 금융기관들이 한자리에서 모여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인도 간의 관계가  
단순한 사업파트너를 넘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언제나 편하게 교류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금융위는  
아세안·인도 국가들과의 금융분야 상생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4차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